

2. 인문 II

201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I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다룬 글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드러난 도구적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인도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자연관을 보여 준다. 제시문 [다]는 진화생물학자의 시각을 통해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과 미약한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제시문 [라]는 이스터 섬의 몰락이 인간의 환경 훼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려 준다.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문제배경 설명 : [문제 1] ~ [문제 2] 제시문

제시문 [가]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주의」라는 글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고대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난 도구적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4, 118-119쪽)

제시문 [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책은 13세기 후반 아시아를 다녀간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제시문은 그가 인도 동남부를 지나며 겪은 일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인도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며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고전』, 해냄에듀, 2014, 226쪽)

제시문 [다]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저서 『여덟 마리 새끼 돼지』 중 1부의 「2. 황금률: 우리의 환경 위기를 평가할 적절한 규모」에서 발췌한 글로, 환경 문제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진화생물학자인 굴드는 오만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라는 황금률의 원칙을 제안한다. (출처: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4, 130쪽)

제시문 [라]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스터 섬의 몰락」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스터 섬의 쇠락 원인을 주민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파괴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국어II』, 동아출판, 2014, 174-181쪽)

제시문 [마]는 소설가 최성각의 수필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를 줄여 환경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410-413쪽)

제시문 [바]는 전력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이 심한 화석 연료보다 조력, 파랑 에너지와 같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환경 보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주장한 논설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싸인 국가에서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 『국어II』, 천재교육, 2014, 73-74쪽)

[문제1] 제시문 [가] ~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하십시오. (20점)

■ 출제의도

- (1) 이 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각기 다른 자연관을 비교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2) 이 문항은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환경윤리의 시각에서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자멸을 초래한 폴리네시아인들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비판을 설득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우수답안

(1) 제시문 [가]는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는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며, 데카르트는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 그것이 결여된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베이컨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도구적 대상이 된다. 반면, 제시문 [나]의 주민들은 소와 흙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자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소를 영물이라 여겨 도살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에 흙을 숭배한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가 된다.

한편, 제시문 [다]는 거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지구에 비해 인간의 힘은 미약하여 인간은 지구의 파괴자도 지구의 청지기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계몽적 자기 이익을 고려하여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이러한 견해는 지구의 거대한 힘을 강조한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한 [가]와는 대조적인 반면,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나]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이 난 곳이자 돌아갈 곳으로 파악하여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나]와 달리, [다]는 여전히 자연과 인간의 힘을 비교하며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맞추어 이해하고 있기에 [가]의 이분법적 인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있다.

(2) 제시문 [다]의 관점에 의하면 지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대지에 전혀 힘을 미칠 수 없기에 차라리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황금률, 즉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는 환경윤리를 제안한다. [라]의 섬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제단과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우다 결국 숲의 파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자멸하게 된다. 이스터 문명의 쇠퇴는 [다]에서 지적한 대로 자연의 힘에 비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여실히 보여 준다. 만약 [라]의 섬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가 제시한 황금률을 지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두고 자연을 대우했다더라면, 즉 나무를 베더라도 숲이 재생산되는 속도에 맞추어 나무를 베었다더라면, 그들은 숲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근시안적 자기 이익에 근거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

■ 우수답안 분석

- (1)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교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수 답안에서는 각 제시문에서 설명한 자연관과 이에 반영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그 도구적 대상이라는 [가]의 주장,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나]의 인식 및 자연을 대우해야 한다고는 하나 역시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다]의 견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2)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현상을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에서는 [라]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거대한 힘에 비해 나약한 인간을 상기시키며, [다]가 제시하는 황금률의 환경윤리 시각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한 이스터 섬사람들의 행위를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계몽적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자연을 대우하지 않았기에 이스터 섬사람들이 자멸하게 되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문제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글을 읽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여 각 주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두 제시문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재활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적극적인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두 주장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독해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 우수답안

제시문 [마]와 [바]는 모두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글이다. 두 글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문명 발전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시문의 저자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시각을 달리한다.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유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과도하게 생산할 때, 자원 고갈과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한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기존의 물건을 재활용하여 되살려 쓰거나 다른 물건으로 탈바꿈하는 등 삶의 방식을 교정하여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글쓴이 역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기보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상의 문제점 때문에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제시문 [마]의 글쓴이와는 달리 기술 문명 발전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제시문 [마]의 글쓴이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적극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해양 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우수답안 분석

문항 2에서는 제시문 [마]와 [바]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들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에서는 저자들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환경 문제의 원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등과 관련한 시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다. 특히 문명 발달과 관련하여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제시문 [마]의 글쓴이에 비해 적극적으로 해양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제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E국이 있다. A의 소득은 300이며 B의 소득은 150이라 가정하자. 현재 E국의 정부는 A와 B에게 20%의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평균 소비 성향이란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조세를 뺀 금액)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을 Y , 소비를 C 로 표시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frac{C}{Y}$ 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240 이상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6이며 가처분 소득이 0보다 크고 150 이하일 때의 평균 소비 성향은 0.8이라고 가정하자.

- (1)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A와 B 소비의 합)를 구하시오. [10점]
- (2) 경기침체에 빠진 E국의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한다. 세제 개편안 (가)와 (나)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 (가)의 경우 A와 B의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세제 개편안 (나)의 경우 고소득자 A의 소득세율은 15%로, 저소득자 B의 소득세율은 0%로 각각 낮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각각 A와 B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및 총소비를 구하시오. 구한 값들을 고려할 때 세제 개편안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총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지(따라서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10점]
- (3) E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frac{\text{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text{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E-계수'라 하자. E-계수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제 개편안 (가)를 시행할 경우와 세제 개편안 (나)를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E-계수를 각각 구하여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와 비교한 후, (가)와 (나)중 어느 정책이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시오. 앞의 (2)번 문항에서 구한 답을 고려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득 재분배'라는 목표와 '경기 변동 조절'이라는 목표를 한 가지 정책을 통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보 기>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2. 정부는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시장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활발해 경기가 과열되다가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하곤 한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실업이 증가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 출제의도

경기 침체 시 소득세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문항에서는 소득세 감면 정책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요구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경제적, 논리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률적인 소득세 감면과 누진적인 소득세 감면이 갖는 경기 부양 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경기 변동 조절과 소득 재분배라는 일견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이다. 그 과정에서 가처분 소득, 평균 소비 성향, 소득 불평등 지표, 누진적 세제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우수답안 및 우수답안 분석

- (1)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40(=300 \times 0.8)$ 과 $120(=150 \times 0.8)$ 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44(=240 \times 0.6)$ 와 $96(=120 \times 0.8)$ 이다. 총소비는 $240(=144+96)$ 이다.
- (2)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70(=300 \times 0.9)$ 과 $135(=150 \times 0.9)$ 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62(=270 \times 0.6)$ 와 $108(=135 \times 0.8)$ 이다. 총소비는 $270(=162+108)$ 으로 증가한다.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255(=300 \times 0.85)$ 와 $150(=150 \times 1)$ 이며, A와 B의 소비는 각각 $153(=255 \times 0.6)$ 과 $120(=150 \times 0.8)$ 이다. 총소비는 $273(=153+120)$ 으로 증가한다.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발생하는 총소비 증가에 비해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발생하는 총소비 증가가 더 크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 (나)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세제 개편안 (가)와 (나) 모두 정부의 세입은 45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의 총소비 증가가 더 큰 것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 주어서가 아니라 세금 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항에서 주어진 가정에 의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으므로 소득세 감면 시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율보다 더 큰 것이다.
- (3) 세제 개편안 (가) 시행 시 E-계수는 $270/135 = 2$ 이고, 세제 개편안 (나) 시행 시 E-계수는 $255/150 = 1.7$ 이며, 현재 조세 정책 하에서의 E-계수는 $240/120 = 2$ 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 (나)가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다. 앞의 문항 (2)에서 구한 답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 (나)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